



† 금주의 성화

제4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 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사랑을 복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 보통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기도문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다른 묵상 글이나 기도를 쓰기도 한다.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건강이 매우 악화되시기 전에는 매년 성금요일에 큰 십자가를 지시고 교구 신자들과 함께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셨는데, 2000년 대희년의 성금요일에는 스스로 지으신 기도문을 사용하셨다.

이홍구(스테파노) 작
한국 가톨릭 이론 연구소장

† 오늘의 전례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4-21 참조)

오늘의 말씀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식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빛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빛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제1독서 2역대 36,14-16,19-23 제2독서 에페 2,4-10 복음 요한 3,14-21

화답송 © 내가 만일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딭시다 • 3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먼저 양보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성부 하느님의 사랑



소요한 요한 신부 / 연일성당 주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성부 하느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을 세상에 파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느님께 죄를 지어 죽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 성자 하느님을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사람이 되게 하시어 세상에 파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너그러우신 분,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아가면 아무런 꾸중 없이 모든 것을 감싸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3년이라는 짧은 공생할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죄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나이가 구리 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린 것은 성부 하느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4복음서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성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다운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통해 멀리 떠나간 작은 아들을 매일 생각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무조건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부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하였고, 또 “잃었던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판에 둔 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성부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다운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윤락녀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 취급을 받던 세관원 마태오를 제자로 삼으셨던 모습에서, 죄인의 집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던 세관장 자캐오

의 집에 들어가시어 음식을 나누셨던 모습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모습에서 성부 하느님은 죄인들을 누구보다도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4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 안에서 드러나는 성부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 특히 잃어버린 사람들과 죄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부 하느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안에서 드러나는 성부 하느님의 아버지다운 크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성부 하느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당신 성자 하느님을 세상에 파견하셨다고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부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멸망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행실이 드러날까봐 빛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쁜 행실을 버리고 빛을 사랑하는 것으로의 전향인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은 사순 시기동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여 그분 안에서 드러나는 성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들여야 함을 알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남은 사순 시기를 잘 보내시어 기쁜 예수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공동체 전체가 하는 것!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 교구 청소년담당

‘끓는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따뜻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에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경제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학벌 중심의 교육열이 끝을 모르고 고조되어가고 있는 교육현실이 아이들의 인성과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 안에서 아이들 양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로지 학교와 학원에 의존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가 가진 폭력과 차별의 문화, 이혼율 증가, 전쟁놀이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인터넷 게임의 확산 등도 구체적 교육환경 못지않게 청소년들을 생명의 문화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현재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 영부인 시절 외동딸을 키우며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해(It takes a village)』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폭력과 마약이 판치는 미국의 현실에서 아이를 잘 키우려면 가정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마을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마을에 누가 살고 있고, 또 그 집 아이들은 누구인지 모두 알아서 최소한 예의범절에 관해서 만큼이라도 마을전체가 다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도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Q. 목주기도를 바칠 때 무엇을 묵상해야 하나요?

A. 많은 교우들이 즐겨 바치는 목주기도는 소리 내어 외는 구송, 마음으로 새기는 묵상, 그리고 주님께 영혼을 내어맡기는 관상을 모두 겸하는 뛰어난 기도입니다. 입으로만 외다면 바른 기도라 하기 어렵고, 관상에 이르지 않는다면 해도 묵상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목주기도를 바칠 때 묵상의 바른 방법은 우리가 목주기도의 각 단을 시작할 때 “~을 묵상합니다.”라고 초대하듯 내용, 즉 각 단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고통의 신비 1단을 바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땀 흘리심”에 대해 묵상하면 됩니다.

은총,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재앙과 불행을 맞이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복음 말씀은 하느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로부터 치유가 필요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되새겨 줍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말씀과 교리 :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은총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이며 거저 주시는 도움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996).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성화은총(聖化恩寵)이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999). 성화은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또는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응답하는 방법은 하느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교회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각 성사들의 고유한 은혜인 성사의 은총도 있고, 카리스마(Charisma)라 부르는 특은(特恩)들도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상한 언어의 은사도 있지만 모든 은사들은 성화의 은총을 위해 있는 것이며, 교회의 공동선(共同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03).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사랑과 은총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사 : 세례성사의 은총과 완덕을 향한 부르심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이를 의화(義化)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화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분이 되고, 하느님 아버지와 결합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죄에서 해방되며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은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완덕(完德)을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완덕을 위해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랑의 공로(功勞)를 쌓아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생활

- 우리가 어둠을 버리고 빛의 생활을 하는데 하느님의 은총은 어떤 도움을 주니까?
- 완덕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십계명 - 3

제8계명 :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제8계명은 말과 행동으로 남의 명예를 존중하고,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명합니다. 진실을 거스르는 거짓말이나 위증, 이간질과 잘못된 판단은 물질의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없는 비행을 있다고 말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명예를 훼손했거나 물질의 손해를 끼쳤으면 충분히 명예를 회복시키고 물질적 손해를 보상을 해야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벌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혹시 실수로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땅히 말을 해야 할 때에 남을 속일 생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제9계명 :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9계명은 남의 배우자에 대한 음욕을 금지하고 혼인의 정결을 보호하도록 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제6계명에 제9계명이 덧붙여 있는 것은 그런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해 주신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음란한 생각이나 욕구는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일어날 수도 있

지만, 이를 물리치지 않고 즐기게 되면 악습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피하면 도리어 정결을 지키는 공로가 됩니다.

제10계명 :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은 제9계명과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기나 도둑질을 해서라도 남의 것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탐욕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는 사랑의 정신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탐내기 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느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을 더 무게있게 다룹니다. 사람의 악한 생각과 계획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운 신자들은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247

오늘의 미사 · 사순 제4주일

【입당성가】	249 기쁜 날
【제1독서】	2역대 36,14-16.19-23
【화답송】	◎ 내가 만일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제2독서】	에페 2,4-10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복음】	요한 3,14-21
【영성체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그리로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성체성가】	180 주님의 작은 그릇
【파견성가】	122 구원의 십자가

† 교구 소식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월 20일 화요일은 (故) 박도식(도미니코) 신부님 9주기입니다.

† 교계제도 설정 및 대구대교구 승격 50주년



기념 감사미사 및 교구 100년사 봉정식

교구 100주년 3대 기념사업 중의 하나인 교구 100년사 봉정식이 3월 10일(토) 오전 11시 주교좌계산성당에서 교계제도 설정 및 대구대교구 승격 50주년 기념 감사미사 중에 거행되었다. 교구 100년사는 「은총과 사랑의 자취: 천주교대구대교구 100년사(통사)」,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화보집)」, 「교구사 연대표」, 「교구 본당사」 등 총 4권으로 구성되는데, 통사를 시작으로 이번 여름까지 순차적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기념 축하 음악회

교계제도 설정 및 대구대교구 승격 50주년 기념 축하음악회가 3월 10일(토) 오후 7시 30분부터 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톨릭챔버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송광선, 바리톤 김승유, 뽀에리칸또레스, 팝포크싱어 김보령, 성바오로딸 수도회 '사랑의 이상줍기' 가톨릭재즈밴드 'Believe' 대구 가톨릭음악원 합창단, 대구가톨릭 남성합창단 등이 출연하여 축제의 장을 펼쳤다. 공연 중에는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깜짝 출연하시어 Believe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다.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2012년 3월 18일(일) 14:00, 2012학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 미사 -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혼내준다더니만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모임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상담

대상: 20~30대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젊은여성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가능

문의: 622-4408

carmeldg@hanmail.net

•매월 첫 토요일 저녁기도에 초대합니다

피정

오상의 비오 신부 생애와 영성피정

일시: 3.20(화) 13:00~17:00

장소: 월성성당(강의, 미사, 안수)

강사: 코시모 비체도미니 수사신부

•혈혼장갑, 유품, 생전 거룩한 모습
영상 상영

마리아 영성피정(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3.21(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희망기도 반나절 피정

일시: 4.1(일) 13:00~17:30(미사있음)

장소: 달비골 교육원 (삼성교회 옆)

대구시 달서구 상인3동 1592-1

지도: 최봉도 신부

선착순: 80명, 참가비: 1만 원

문의: 이재천 바오로, (010)3532-2879

작은예수회 2박3일 무료 치유피정

기간: 3.23(금)~25(일)

장소: 가평작은예수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둠을 버리기

강사: 박성구 신부(상담), 숙식제공

버스운행: 대구시민회관앞 11:40 출발

문의: 박 데레사, (016)646-0583

빈센트 성경 통독 피정(창세기-1)

일시: 3.23(금) 20:00~24(토) 13:00

장소: 수원성빈센트드블자비녀회

대상: 미혼(남, 여) 선착순 접수

준비물: 세면도구, 회비: 1만 원

문의: (010)8833-8107

조이플스테이 초대

미혼여성 모임: 4.7(토)~8(일)

모녀 모임: 4.14~15, 21~22(토~일)

문의: 예수성심수녀회 수녀원

(010)9056-9005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 3일 전례피정

일시: 4.5(목) 14:00~8(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13만 원, 선착순: 80명

문의: (054)971-0722

섭리기도모임

일시: 3.25(일) 14: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5777-3413

교육 / 모집

지성인을 위한 신앙 강좌

일시: 3.31(토) 10:00~12:00

마감: 3.30(금), 주최: 신학교육원

장소: 남산동대신학원(참가비: 5천원)

주제: 성삼일과 미사전례음악

강사: 김종헌(발다살)신부

전화: 660-5105~6

파스카청년성서모임 팀 모집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255-1582 (화~토 14:00~22:00)

어버이성경학교

신입생 및 심화반 추가 모집

신입생: 구약 2년, 신약 2년(4년과정)

낮반-수요일, 밤반-목요일

심화반: 월요일(4년 졸업생)

문의: 815-7888 / (010)2889-3114

미사안내

포항지역 군종후원회미사	3월 19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한티 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3월 19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3월 19일(월) 오전 11시	경산성당
제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3월 20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3월 24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대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이준엽·김영섭(베드로) 외 2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안경원
리네뜨
T. 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 (프란체스카)

offtop doctor's cosmetic
이스라엘 사해 미네랄의 24시간 수분 보호막
전문외과 처방한 건강한 보습제 **오프토피!!**
대표 손민정(루시아)
www.offtop.com
(053)526-0363~4
지하철 2호선 두류역 2번 출구 달성피부과 3층

한솔도시락
대구반야월점 / 대구한의대점
☎963-1188 ☎817-3114
오명숙(바울라) / 장종미(아녜스)
※단체주문시 대구·경산전역 배달가능
(휴대용 카드 단말기 결제가능)
대학생MT, 체육대회, 성지순례, 성당단체
주문시 「야곱의집」에서 기념품 증정
http://www.hsd.co.kr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역기(바오로) 011-514-3855

30년 전통의 전자파없는 돌침대
(주)장수구들옥돌침대
2인용 옥돌침대 **88만원**
1544-3837
(053) 656-9990
앞산네거리 (보훈청 옆건물)
대표 : 소춘호(레오)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대연합내과의원
내시경·초음파·호흡기질환 전문
공단검진·각종 종합검진·예방접종
원장·전문외과 이재욱(바오로)
(전 안동병원 내과과장)
☎475-3366 Fax, 475-3311
봉곡동 효성타운 효성스포렉스 1층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모임 / 행사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3.19(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십자가 전시회

일시: 3.21(수)~27(화)

장소: CU갤러리 (매일신문사1층)

주최: 경산성당

김종숙 요한의 사순시기 묵상을 위한 십자가전

수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도음악회

일시: 3.24(토) 17:00

장소: 프란치스코눔 (월배성당 뒤)

주최: 곤벤뚜알프란치스코수도회

문의: (010)5383-0650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3.26(월) 20:30, 상인성당

문의: (010)8397-9783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구미, 김천 어머니학교개강(5대리구)

기간: 3.22~4.19(매주 목) 5주간

장소: 구미 봉곡성당, 회비: 10만원

문의: 2대리구청, (010)6669-9746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피해 예방 교육

일시: 3.24(토) 10:00~12:00

장소: 계산성당 강당

강사: 임성목(도미니코) 상인초등학교사

문의: 제1대리구청, 426-7200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고려수지침: 4.4(수) 14:00

서예: 4.5(목) 13:00

중급, 왕초보, 초급영어: 4.6(금)

자녀를 복돋우는 대화: 4.18(수) 10:00

문의 및 신청: 254-6115

기초 다지기 중국어 강의

일시: 매주 화 19:00

장소: 계산성당 내 계산문화관 3층

개강: 4.3(화), 수강료: 3만원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제46기 선교대학 개강

일시: 4.14(토) 10:00~16:00

장소: 계산문화관3층선교센터

주제: 감동이 선교의 열쇠

지도: 이판석 신부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새빛학교 기초 영어·한문반 모집

영어(주2회): 화, 목요일 13:00

한문(주1회): 화요일 15:00

문의: 교무실, 476-3100 (교대역)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바우처모집

일시: 수시모집

내용: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미술

치료, 통합예술치료, 움직임으

로 풀어나가는 심신치료

문의: 794-6022 / (010)3513-2225

제4회 세상속의 관덕정

기간: 4.13~6.1(매주금) 10:00~12:00

주제: 여성, 천주교와 만나다

수강료: 7만원, 문의: 254-0151

가톨릭문화관교육생모집(476-6211)

내용: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POP,

초코아트, 롤페인팅, 천연비누·화장품

아동돌보기 가족봉사단 모집

지원: 공동모금회 (또하나의 가족)

문의: 756-0183~4

주최: 홀트아동복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목공예 회원모집

목공예, 가구, 목조각 성물 등을 제

작하시는 교우의 전국연대 및 친교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을 합니다.

문의: (010)4009-9349

<http://cafe.naver.com/cmc04>

채용

지산성당 사무원 모집

제출서류: 자기소개서(자필),

이력서, 교적사본

서류마감: 3.27(화)까지

문의: 지산성당 사무실, 781-2668

영천 산 자연학교 주방 조리사 모집

대상: 숙식 가능한 65세 이하 여성

문의: (054)337-0530

(010)3536-6428

안내

2012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문의: 250-3052, 3074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김동익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북구 관음동 칠곡 LC 사거리 옆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1층)
(053)323-6006
<http://www.soagwa.net>
원장, 전문의 : 김동익(요한)

와우이비인후과
수술 전문 | 중이염, 비염, 축농증
코골이, 편도선 수술
귀 전문클리닉, 보청기 상담, 장애진단
원장/전문 의 이 영 호(바오로)
(전, 가톨릭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하철 1호선 성당역 1번 출구
☎ 654-2052 (서부정류장 네거리 LG전자 옆)

최고의 원초만을 고집하는 김의 명품
광천 이조맛김
서해안 청정지역 명품 김
성전건립기념마련 및 바치회, 성모회·자모회 등 각종단체 기금모음
이경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본사 : (041)641-3838 대구지사 : (053)255-3836
한개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1호선 송현역 2번출구 앞

본도는 한 발출의 기쁨도 느끼지 않습니다!
(주)본도 족복을전하는사랑들
본도석유 / 주유소
난방용 대구전지역 배달
080-003-5189 (무료전화)
T. 656-2500, 425-7835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김 현 철(베네딕도)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 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주)평화하이텍
대형저울, 계량기, 계측기 국가교정검사
전자저울·계측기판매·수리·교정점사
대표 한 상 근(알렉산델)
TEL (053)357-1117
FAX (053)357-1123